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의미와 유형에 관한 연구

이형하*

A Study on the Meanings and Typ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Community Participation

Hyoung-Ha Lee*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결혼이주한 후 생활한지 5년이 경과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과정 상 겪게 되는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 참여상황과 참여유형의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과 유형별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이야기 윤곽, 의미 분석, 유형분석, 상황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의 의미는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사회활동 참여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유형 분석결과 '자기성장 주도형', '현실안주형', '사회적 지원 기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이 낯선 국가에 타자화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딪치는 지역의 '참여자'로서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 Keyword :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 의미, 지역사회 참여 유형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ssential meanings of experiences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rural communities have in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and analyzed the situations and types of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in order to support immigration women'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 strategies for social welfare by type of community participation. For these purpose, we analyzed story outlines, meanings, types and situations of community particip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d been over 5 years since their immig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eaning of married immigrant women's community participation was "Recognize myself as the pioneer of my life and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 제1저자 : 이형하
• 투고일 : 2011.12.16, 심사일 : 2011. 12. 26, 게재확정일 : 2012.01.08.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continuously.”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types of participation,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self directed growth type,’ ‘self content type,’ and ‘social support expectation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not as ‘individuals’ otherized in a foreign country but as ‘participants’ of community that are encountered naturally in daily life, and to develop community level services suitable for such women.

▶ Keyword : Married immigrant women, Meaning of community participation, Type of community participation

1. 서 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국가 간 경제, 정치, 문화, 사회참여 등 활동공간의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가로질러 서로 다른 국적, 인종, 성별, 계급, 문화적 상징자본을 가진 두 개인이 결합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성격의 결혼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언어와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와 새로운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사회에서처럼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

1990년대에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하였다[1].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도 증가하게 되었다[2]. 국내의 단순노동인력감소는 부분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하며 또한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따라 저임금의 단순노동을 기피하려는 현상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3].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입국이 늘어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결혼여건으로 혼인 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사정과 함께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상향 및 생활환경 등이 여유로운 국가로 이동하여 더 나은 취업기회와 생활환경을 개척하고자 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이 되어 왔다[4]. 이러한 현상을 남성의 경제력과 여

성의 성적 교환을 통한 거래로서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상품화와 결합되면서 이주여성을 열악하고 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5], 세력화(empowerment)와 지역사회 참여[6], 이주민의 종족 공동체(ethnic community)[7], 초국적 사회관계망(transnational ethnic network) 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8][9]. 그러나 최근에는 이주문제가 사회적 아젠다로 부각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할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10].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고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과정상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이다[11][12].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사회관계의 변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는 한국인 주민과의 갈등과 소통, 공존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장기간 굳어진 토착민 중심의 관행들로 통용되는 생활공간은 국제결혼의 급증과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쌍방향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생소한 공간에 진입하여 느낀 초기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남편과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생존의 몸짓 경험, 지역사회참여의 걸림들로 작용하는 문화적 차이와 편견, 이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배제의 경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지지를 징검다리 삼아 새로운 사회자본의 형성과 정체성 찾아가기 과정상의 경험,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계책임자로서의 경험,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체험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결혼이주한 후 생활한지 5년이 경과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과정상 겪게 되는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 참여유형을 도출

하여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과정상의 지원방안과 참여 유형별 사회복지실천 적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이 낯선 국가에 타자화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딪치는 지역사회의 '참여자'로서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 의미와 유형은 어떠한가?"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최근 들어 정책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의 이주여성 및 가족실태조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는 지역사회 참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않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각종 모임에 참여도, 지역사회 참여활동 의사 등이 조사되었다. 즉, 김은숙·김승희(2007)의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참가하는 모임이 없음' 34.2%, '출신국 모임' 26.2%, '종교단체 모임' 22.4%, '반상회' 6.0%, '학부모 모임' 5.4% 순으로 나타나 본국출신의 친목모임과 출신국의 종교적 배경을 같이한 모임을 주로 참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토착민과의 접촉빈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심인선(2008)의 경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본국출신 사람들과의 사교 및 친목모임' 30.6%, '이주여성 혹은 국제결혼 가족모임' 18.3% 순으로 나타나 주로 참여하는 모임은 같은 이주자들이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 모임임을 알 수 있었다[14]. 이용균(2007)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같은 지역의 출신국 친구들과의 교류에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12]. 이러한 초기 적응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공동체는 심리적 안정의 닻(anchor)을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으로의 동화를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타자성을 인정해주면서 지역사회로의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이들 연구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지역사회라는 변수를 고려한 연구로 박재규(2006)의 이주여성 농촌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국내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0]. 예를 들면, 외부교육이나 모임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의 경

우 부부생활이나 이웃관계에 긍정적이었다. 양순미 외(2009)의 연구에서는 '농업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취업활동' 등의 3영역에서의 참여이후의 생활만족 변화수준은 '농업활동' 참여보다 '지역사회참여활동', '취업활동'에서 높게 나타나 사회참여가 다른 사람과의 사교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망(supporting networks) 역할을 할 뿐 아니라(Murphy, 2003),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케 함으로써(Lemon et al., 1972) 비롯된 결과라고 했다[16].

임석희(2009)의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하며,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7]. 한상일(2008)은 미국의 LA지역과 한국의 서울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참여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영어구사능력과 소득 및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활동은 낮아지고,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높게 나타났다[18]. 이는 이순형 외(2006), 양순미 외(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지역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의 예로 사항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을 가장 1순위로 나타나 새로운 사회에 이주하여 정착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문제가 관건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19].

최금혜(2006)는 조선족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과정을 '스트레스 경험과정', '대처 및 해결과정', '미래 계획과정'으로 설명하였다[20]. 구치순(2007)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을 '혼돈과 갈등의 단계', '둘러보고 시도해봄의 단계', '조화를 위치를 찾음의 단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림의 단계'로 설명하고 주류사회구성원과의 접촉의 질과 양, 현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등에 주목하였다[2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성원으로서 지역사회환경과 지역주민 등과의 관계 속에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정책으로서 지역사회 차원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사회 적응 외에 적응유형에 대한 연구로, 최금혜(2007)는 한국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범주의 속성과 차원뿐만 아니라 결혼계기, 경제적 지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학력 및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등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

속노력형', '불가피순응형', '긍정적인내형', '변화시도형', '유동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한 후, 유형별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22].

한편,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사례중심으로 수행한 사례중심의 연구로 Itzhaky(2003)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디오피아와 구소련출신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년간 운영된 프로그램 결과, 이주여성들은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로 참여한 이주여성 대부분이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지위가 상승되고 공동체 소속감 등이 높아졌다고 했다. 즉, 커뮤니티 활동으로 리더십 향상, 커뮤니티 소속감 강화, 그리고 세력화의 효과를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23]. Zentgraf(2002)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민 이후 임금 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 이민자들은 이민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모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 과정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이라기 보다는 가족, 공동체, 나아가 더 큰 사회적 맥락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4].

III. 연구방법

1. 질적연구

질적 연구는 행동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에 주의하여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의미세계를 연구하는 접근법이다[25]. Creswell(1998)은 연구 패러다임으로서 질적 연구는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 전통들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연구과정이며 연구자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을 보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였다[26].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후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가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사회라는 환경의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의 생활세계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변형시키는 특성의 이해를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체화된 언어라

는 상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해석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며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또한 연구주제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인 관계로 지역의 주요 주민서비스 및 교육활동의 공간인 군청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받은 결혼이주여성 신분인 5명을 1차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차 선정기준은 한국사회에 결혼이주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지역의 참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소통이 수월하고,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 맡긴 후 각종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3.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와 방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질문과 주제 그리고 언어적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 경험을 저술한 단행본,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관련 TV 출연내용을 담은 비디오 자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자조모임의 인터넷 카페 등 비학술적 문헌이나 글에 대해 고찰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1차 참여자 선정과 심층 인터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1차로 선정된 참여자들에 대한 비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대한 필사작업(transcript), 그리고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1차 참여자로부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소개받아 2차 참여자를 선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연구자가 인식한 연구 참여자의 감정, 태도, 경험, 반응 등의 현장에서 메모한 현장 노트를 개념형성과정에 함께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실, 결혼이주여성 가정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 면담 내용에 대한 활용, 비밀보장, 녹음에 대한 허락 등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내용을 연구자가 다시 녹음을 들으면서 확인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에 60분에서 120분 정도 걸렸으며, 면담횟수는 1회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소지자 1인, 질적연구회 멤버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조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어적 일관성을 위하여 국문학 박사학위 교수 1인으로부터 분석내용에 대한 언어적 감수를 받아 연구결과를 수정함으로써 본 논문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범위는 26세부터 46세였으며,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7명, 40대 5명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연령범위는 39세부터 51세였으며,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11명, 50대 1명이었다. 남편과의 연령차이는 최소 2년에서 최대 16년이었으며, 평균 7.1년정도였다. 결혼 후 한국에 체류기간은 5년부터 16년으로 평균 9.8년 정도 되었다. 결혼관계는 결혼유지 12명, 별거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1명,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6명, 전문대학 졸업 2명, 대학교 졸업 4명이었다. 참여자의 직업상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명, 자활사업 참여 2명, 가족단위 농업에 종사 2명, 자원봉사활동 1명이다. 남편의 직업상태는 농업 6명, 건축분야 2명, 회사원 1명, 기사 2명, 일용직 2명이다. 연구 참여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 2명,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명, 자녀가 2명인 경우가 4명, 자녀가 3명인 경우가 3명, 자녀가 4명인 경우가 1명이었다. 시부모와 동거한 경우는 3명이었다. 종교의 경우 종교 없음이 4명, 통일교 4명, 기독교 2명, 천주교 2명, 이슬람교 1명이었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상중하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말을 잘하는 상위수준 6명, 중간수준 6명, 하위수준 1명이었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기초수급 2명, 저소득 4명, 중간정도 7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출신국가는 필리핀 4명, 중국(조선족) 3명, 일본 2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1명, 과테말라 1명이었다. 거주지역은 전남의 1개 시의 면단위 지역 5명, 5개군 지역 8명이었다.

2. 분석결과

2.1. 이야기 윤곽¹⁾

1) 이야기 윤곽은 연구의 핵심범주를 다른 개념이나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 연관성을 확인하여 다듬으면서 범주를 기술하는 과정으로서 서술에서 개념화로 가기 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에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핵심의미는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하기'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참여자 A~M>).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자신이 계획한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거나 결혼적령기를 넘기게 되자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지 않고 결혼하였다. 통일교를 통해 결혼한 참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정보조차 없이 종교적 신념 하나만으로 모험과도 같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생면부지의 남편이 지적장애 인이라는 사실도 시집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망설임 없이 한국에 온 참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심하게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문제였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물론 동네 어른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한 나머지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게다가 사는 곳이 농촌지역이라 대화를 나눌 상대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또래도 없었으므로 언어습득에 한계가 있었다. 한 일본인 참여자는 한국 사람들의 하는 말이 무척 빠르고 목소리가 커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싸우는 것처럼 들렸으며, 상대방의 특징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노인층이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 인사 예절 등 문화와 의식구조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부적응도 있었다. 모르는 분이라 인사를 안 했다가 오해를 받았고,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시골 어르신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도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말 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지금은 어느 나라 음식이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전국 어디나 배달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한국 음식이 전혀 입에 맞지 않아 고생이 많았다. 입덧이 심해 한 달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날마다 울기만 했다.

농촌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심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외출할 때도 어른들의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가야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다른 풍습과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전통사상을 가진 시댁 어른들의 비위를 맞추기

한 과정이다[27].

위해 순종하며 가사를 전담했다. 한 참여자는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 점심상을 하루에 8번씩 차리기도 하면서 자아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동네 분들과는 인사 정도만 하고 다닐 뿐 특별한 교류나 왕래는 없이 지냈고, 이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의 정신적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모국에서는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농사일도 힘들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빚이 늘어갈 때는 한숨만 나왔다. 남편이 농사짓는 일을 하는 줄 알았으면 시집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단순노무직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농촌은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활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로 인해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고 싶지만 부모님과 함께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로 가족 내에서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된다. 배우자의 성격이나 가정환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니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언어적 제약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더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남편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금전적 어려움은 견디기 힘든 갈등 요소 중 하나였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집안일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뎠직한 말투는 이는 사람 없이 타국에서 적응해야 하는 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만머느리지만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들과만 상의하는 시어머니에게 머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과 소외감도 느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 쌓여갔고 그 갈등은 분가 후에야 해소되었다. 자녀들 또한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면을 보였다.

한국에 가면 잘 살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허무감으로 인해 살고 싶은 희망마저 희미해진 참여자들에게 현실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들은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친정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믿고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였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던 참여자들은 화려한 생활을 향유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먼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브로커의 소개로 나이 차이가 15년이나 되는 남편과 결혼한 참여자는 당시에 신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빚을 얻어 부자 행세를 했던 남편이 실제로 결혼하고 보니 빈털터리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참여자에게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집안 사정을 아는 동네 분들은 참여자가 힘들어서 도망갈 지도 모른다는 선입견까지 가지고 있었다.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는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이들을 참여자에게 맡기기를 꺼려하는 학부모의 불신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정착 초기에 배우자나 시댁과의 갈등과 부정적 측면을 접했지만 다양한 지지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가족 체계 내에서는 남편의 언어적 지지를 비롯하여 시부모님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었다. 가족들의 지지는 참여자들이 낯선 땅에서도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 직장 동료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 등을 설명해주고 도와줌으로써 참여자가 지역사회활동에 적응하기 쉽도록 지지하였다. 이웃들은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참여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주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조 집단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그밖에도 학교 운동회나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참여자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극복되었고 불편하게 생각되었던 농촌생활도 익숙해졌다. 오히려 공기 좋고 여유 있는 시골이 도시보다 만족스럽다고 여겨진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습득하고 다양한 직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습득했다.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유문화를 인식하고 풍습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처한 현실을 수용하고 적응하려 노력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가출이나 이혼을 생각하기보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실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던 자신을 버리고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강한 생활력을 가진 참여자들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 이외에도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처지가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원어민 강사 모임을 결성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한편,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통·번역 일을 자원하였다. 이주여성들에게 통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며 위로와 격려,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지역축제나 다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와 풍습, 음식 등을 배우는 문화 교류의 기회로 삼았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남편에게 짜증을 낼 때가 많았는데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 사회활동을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가족들 덕분에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생겼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사회활동을 하게 된 후, 자신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직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게 되면서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스스로 인내하고 희생한 만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참여자도 자신을 믿고 인정해주자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가족 간의 결속력과 사랑도 깊어졌다.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도 존재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얽매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발판삼아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며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며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2.2. 의미분석²⁾

2) 본 연구에서의 의미분석은 이야기의 핵심범주를 말한다. 핵심범주는 분석적 힘을 가지고 있다. 핵심범주에 그 힘을 주는 것은 다른 범주를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형성하도록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핵심범주는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범주 선택의 기준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6가지 준거를 적용하였다(27).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과정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하기"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 나타났다(<참여자 A~M>). 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세상 밖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 집에서 혼자 남게 되어 겪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낮은 자아정체감의 굴레는 점차 줄어들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인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인정을 받고 비전을 갖고 보람을 느낀다.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직접 벌어들인 수입이 생기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존감도 높아졌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도 다시 생겼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열정을 품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 여겨진다.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개척자임을 자각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지적인 가족체계와 지역사회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가 다차원적으로 작동되어야 가능하다. 즉,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체계인 배우자, 시댁, 원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생활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조선족 출신의 이주여성의 경우 남동생이나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장 동료와 이웃 그리고 자조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배움을 함께하고 아이들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쌓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을

첫째, 핵심범주는 반드시 중심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타 모든 주요 범주가 그것과 관련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핵심범주는 반드시 자료에 자주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범주들을 연결시킴으로서 발전하게 되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무리하게 자료에서 뽑아서는 안된다. 넷째, 핵심범주를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이나 어구는 기타 실체(substantive) 분야에서의 연구에도 사용되어 더 일반적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통합을 통해 분석적으로 정교화 함에 따라, 이론의 깊이와 설명적 힘에서 성장해야 한다. 여섯째, 개념은 자료가 나타내는 요점 뿐 아니라 변화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비록 현상이 표현되는 방식은 약간 다르게 보일지라도 설명은 계속 유효해야 한다. 또한 그 중심 생각에 따라서 모순되는 사례나 대체 사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생활상의 과정에는 불안한 요소들도 늘 상존하고 있다. 즉,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과 남편과의 연령차이로 인한 남편의 건강문제와 자신들의 노후 걱정도 미래의 불안 요소이다. 그러나 배우자만 의지하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처지라 참여자들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비를 위해 적금을 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생활비를 쪼개어 배우자의 건강보험도 가입하였다. 불안하기만 한 미래지만 꿈과 희망이 있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은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지역사회 참여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국민을 위한 통역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가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관계처의 보조비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법률 지식 등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배우기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

2.3. 유형분석³⁾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하기'의 과정은 인과적 조건-현상-맥락적 조건-중재적 조건-작용/상호작용전략-결과라는 근거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3가지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유형은 '자기성장 주도형', '현실 안주형', '사회적 지원 기대형'으로 구분하였다.

2.3.1. 자기성장 주도형

'자기성장 주도형'에서는 국제결혼을 주도적으로 선택했고, 결혼 후 부딪치는 현실문제도 많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단순 생계형 이상의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것은 현실과 기대간의 차이가 적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부정적 시선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기성장 주도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편과 시댁식구, 원가족, 자조집단, 직장동료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많고, 사회적 지지의 내용도 다양하게 인식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 토양은 농촌지역이라

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자기성장 주도형' 유형에는 <참여자 D>, <참여자 I>, <참여자 L>, <참여자 M>이 속해있다.

이 유형에서 <참여자 D>는 TV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국어가 익숙해지자 배 농사를 잘 짓는 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농사 방법도 열심히 배웠다. 남편과 함께 배 농사에 열정을 쏟으며 농사에 대한 보람도 느꼈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하여 배를 이용한 전통음식을 지역특화상품으로 사업화시키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참여자 혼자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문제들이 많아 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참여자 M>은 농사를 쉬는 겨울철에 일을 찾아 자활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원어민 강사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필리핀 친구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여 함께 교육을 받고 이주여성들이 원어민강사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원어민 강사를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음식과 문화도 소개하는 등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을 아이들도 무척 따르고 좋아한다. 일을 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는 참여자는 일요일은 교회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2.3.2. 현실 안주형

'현실 안주형'에서는 국제결혼을 주도적으로 선택했고, 결혼 후 부딪치는 현실문제도 많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단순 생계형 추구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것은 현실과 기대간의 차이가 커 당혹스러웠지만,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부정적 시선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실 안주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편과 시댁식구, 원가족, 자조집단, 직장동료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많고, 사회적 지지의 내용도 다양하게 인식하였지만, 농촌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게 바라본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현실 안주형' 유형에는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H>, <참여자 J>가 속해 있다.

이 유형에서 <참여자 C>는 재가복지를 통해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여성을 위한 통역과 인력개발공단 및 여러 회사의 외국 관리를 채용할 때도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통역이나 자원봉사할

3)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이다[27].

등을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불만이 있어도 조금 양보하며 맞춰 살게 되었고, 내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자원봉사나 프리랜서로 하는 통역도 좋아하는 일이지만, 수입이 많진 않더라도 커가는 아이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을 갖기 원한다. <참여자 J>는 1년 전부터 한국어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결혼이민자지원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결혼이주여성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자녀들도 TV나 신문에 나오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면담자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감과 보람을 찾았다. 미래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2.3.3. 사회적 지원 기대형

'사회적 지원 기대형'에서는 국제결혼을 부득이 하게 선택하였고, 결혼 후 후회하는 현실문제도 많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단순 생계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부분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것은 현실과 기대간의 차이가 크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도 컸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부정적 시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 기대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편과 시댁식구, 원가족, 자조집단, 직장동료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적고, 사회적 지지의 내용 역시 빈약하다고 인식하며,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더욱 증폭작용을 하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어려운 여건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회적 지원 기대형' 유형에는 <참여자 E>, <참여자 F>, <참여자 G>, <참여자 K>가 속해 있다.

이 유형에서 <참여자 E>는 한국보다 못 사는 중국에서 왔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참여자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편과만 상의하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마저 느끼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 모임의 총무로 활동하며 같은 처지의 그들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경영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과 불임수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중국이주여성들에 대한 빠른 국적취득을 기대한다. <참여자 K>는 조선족 학교가 거리상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한족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고 국제결혼을 결심하고서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람 하나 없는 타국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농촌지역이라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배움의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다는 참여자는 사·군에서 직업(일)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참여자는 결혼 10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품고 있다.

표 1. 지역사회 참여 유형분석기준
Table 1. Analysis Standard of Type of community participation

구분	자기성장 주도형	현실 인주형	사회적 지원 기대형
인과적 조건	국제결혼 선택 (주도적)	국제결혼 선택 (주도적)	국제결혼 선택 (미온적)
	현실문제 (적음)	현실문제 (적음)	현실문제 (많음)
현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미래지향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현실인정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단순생계지향적)
매력적 조건	현실에 당혹함 (적음)	현실에 당혹함 (금)	현실에 당혹함 (금)
	갈등을 경험 (적음)	갈등을 경험 (적음)	갈등을 경험 (금)
	부정적 선입견 (적음)	부정적 선입견 (적음)	부정적 선입견 (금)
중재적 조건	사회적 지지체계 (금 - 많음)	사회적 지지체계 (금 - 많음)	사회적 지지체계 (적음 - 적음)
	지역적 한계 극복 여건 (충분)	지역적 한계 극복 여건 (불충분)	지역적 한계 극복 여건 (불충분)
작용/상호작용 전략	삶의 돌피구 찾기 (적극적)	삶의 돌피구 찾기 (소극적)	삶의 돌피구 찾기 (소극적)
	적응해 나감 (적음)	적응해 나감 (적음)	적응해 나감 (부적응)
결과	미래를 준비함 (충분)	미래를 준비함 (불충분)	미래를 준비함 (불충분)
	지속적인 사회활동 희망 (투명-지속적)	지속적인 사회활동 희망 (불투명-지속적)	지속적인 사회활동 희망 (불투명-일시적)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 (현실적 낮음)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 (현실적 낮음)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 (다층적 높음)

2.4. 상황분석⁴⁾

본 연구에서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하기'의 상황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결혼

4) 상황분석은 연구 중인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이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관련되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설명하는 단계이다[27].

이주여성의 개인 수준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의 '힘든 현실'에 직면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고단한 현실은 사회활동 참여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의 당혹스러움'이다. 그러나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는 행위가 개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자 노력하며,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내 집 마련의 꿈과 대학진학의 희망을 품으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족체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준비과정에 여성단체에 가입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데에는 가족 수준에서의 지지적 환경이 필요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와 적응단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나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해 보는 도전정신을 발휘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자원을 활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직업교육을 희망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국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개척자가 되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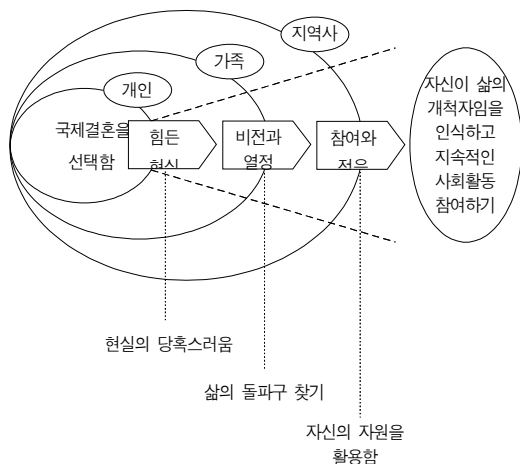


그림 1. 상황분석 결과
Fig. 1. Situation analysis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의 의미와 유형을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의미와 상황분석 결과 및 유형분석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참여경험의 핵심의미인 "자신이 삶의 개척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황분석 결과(그림 1. 참조)에 나타난 다음의 단계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① '힘든 현실단계 - 현실의 당혹스러움'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으로 우선, 언어의 차이로 '말없는 이방인' 처지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교재지원, 양질의 한국어 교사 확보 및 '실생활 적용형 한글교육'이 중요하며, 한국어 교육의 구체화, 현실화, 단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어 수준은 여성결혼이민들에게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이와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출신국, 학력, 거주지역, 가족유형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양함으로써 출신국별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그 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어 교사로 교육시켜 초급단계에서 이들을 교사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중언어교실 운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중언어 습득 효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엄마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미래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사일을 수행하면서 '겉껍이 힘들'을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 대해 영농교육기술이나 저렴한 농지임대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생산자 조직과 같은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비전과 열정단계 - 삶의 돌파구 찾기'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으로, 현재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기초적 적응 과정을 거친 결혼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계기로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사회와 출신국의 정보 취득, 취업정보 활용 등을 위해 소그룹 중심의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의 운영이 필요하다. 면사무소내 주민정보실 공간을 활용하여 이주여성들의 눈높이 맞는 정보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T- IT 서포터즈 봉사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지원 활동과정 상 출신국가의 상이, 학습능력 과 욕구의 차이, 정보검색의 종류의 다양성 등을 반영한 이러

닝(e-Learning) 시스템과 연계한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교육과 학습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28].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로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단기 취업기술 교육을 시행하는 차원을 넘어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된 취업기술 교육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수준과 노동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출신국에서 특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 과정을 거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격증제도-이중언어지도사, 아시아문화해설사, 출신국 통번역사 등-를 도입하여 '소득 참여활동'을 통한 자립토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과 남편, 자녀들의 가족주기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과 보건, 노후준비에 대한 금융지식 등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참여와 적응단계 - 자신의 자원을 활용함'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Bourdieu(1985)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29].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즉 '지역사회주민으로 동행할 사람'으로 간주하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강화 관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이 쌍방향적인 교류에 기반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개별 기관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 관계자 등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실제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과정별 욕구와 수요 등을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가이드라인도 포함해야 한다[30].

한편, 지역사회 참여유형 분석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적용 방안으로 첫째, 자기성장 주도형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기술교육과 사회적 기업 운영을 연계하여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사업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취업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31].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생산된 지역특화 품목들은 공동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통해 도시와 직거래가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취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농촌지역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분야와 농공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안주형의 경우,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개인 차원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을 담은 배우자 국가의 문화 이해와 수용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32]. 특히,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단체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면, 농촌지역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 여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지역의 읍, 면 단위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사, 마을 이장, 마을 부녀회, 여성 농민회 등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지원 기대형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생활이 궁핍한 이주여성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공공캠페인이나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자매결혼, 지역사회 내 이들의 정착과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33].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조직화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네트워크 마련과 활동들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Hwi Won, Kang, "The integration of a multicultural

- society and the local governance," Characterization Agency of Pyeongtack University, 2007.
- [2] Rae Young, Park, "Research on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Th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6, pp.1-28, 1993.
- [3] Sun In, Shin, "Family Welfare Services for Lower-Socioeconomic-Status Foreign Families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7, pp.113-139, 2004.
- [4] Yu Kyung, Kim, "Welfare Policies in Multicultural Era : for multicultural familie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 [5] Fasit, T.,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3, No. 2, pp.189-222, 2002.
- [6] Castles, Stephen, "Migr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under Condition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6, No. 4, pp.1143-1168, 2002.
- [7] Hugo, G., "Migration and women's empowerment," in H. B. Presser & G. Sen(eds.), Women's Empowerment and Demographic Proces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8] Se Geong, Park, et. al., "The Terms and Prospects of Social Capital for the Invigoration of Community-base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9] Jung Mee, Hwang, et. al., "A Study on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of Immigrant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Kore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 [10] Chae Kyu, Park, "A Study of Rural women's adjustment to life in inter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Rural Economy, Vol. 29, No. 3, pp.38-53, 2006.
- [11] Ae Gyeong, Yang et. al., "Research on immigrant women community water-solubl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 [12] Yong Gyun,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 Migrant : The Case of Boeun and Yangpyeong," Korea Journal of Urban Geography, Vol. 10, No. 2, pp.35-51, 2007.
- [13] Enn Sook, Kim, Seung Hee, Kim, "A Study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tus and Community support for adaptation in Gangwon-Do," Gangwon Development Institute, 2007.
- [14] In Sun, Shim, "A Study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tus and settlement support in Gyeong-Nam,"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008.
- [15] Keun Moo, Lee, Jin Sook, Kim, "A Study on the Biography of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 A Story of Neo-diaspora of Seven 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pp.135-162, 2009.
- [16] Soon Mi, Yang, Kyu Hong, Choi, and Kyung Ha Kang,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and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Journal of Coach and rural development, Vol. 16, No. 4, pp.735-738, 2009.
- [17] Seok Hoi, Yim, "An Analysis Determina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aptation to Their Communitie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12, No. 4, pp.364-387, 2009.
- [18] Sang Il,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Arou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uth Korea Local Authorities, Vol. 20, No. 2, pp.66-67, 2008.
- [19] Soon Hyung, Yi, et. al., "Support measures to settle the rural immigrant women marrie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6.
- [20] Jin Hai, Cui,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Process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 [21] Chs Soon, Koo, "Grounded Theory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7.
- [22] Jin Hai, Cui,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and the Pattern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 Women's Studies*, Vol. 72, No. 1, pp.143-188, 2007.
- [23] Itzhaky, Haya, "Developing Empowerment and Ledership: The Case of Immigrant Women in Israel," *Affilia*, Vol. 18, pp.289-301, 2003.
- [24] Zentgraf, Kristine. M, "Immiigration and Women's Empowerment: Salvadorans in Los Angeles," *Gender and Society*, 1, 625-646, 2002.
- [25] Jong Hyug, Choi,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Yangseowon Book Publishing, 2009.
- [26]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 [27] Srrauss, A.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 [28] Youn-Hee, Kim, Jee-Hyun, Kim, "A Query Processing Method for Hierarchical Structured e-Learning System,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6, No. 3, pp.189-201, 2011.
- [29]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1985.
- [30] Yongjung, Choi, Sangyun, Jung, "A Study Evaluation of Administration Service Quality of District Offi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6, No. 1, pp.191-199, 2011.
- [31] Yi Seon, Kim, et. al., "Immigrant women's social and economic progress in integrated programs for the Bridge Program promoting measure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 [32] Hye Ji, Choi,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pp.163-194, 2009.
- [33] Hye Mee, Yoon, "Social Work with Marriage Based Immigrant Families : an Application of Empowerment Approac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4, pp.85-108, 2009.

저 자 소 개



이 형 하

2004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다문화복지

Email : hhleee62@kwu.ac.kr